

하루를 시작하며



고 나혜
시인

며칠 전 필자는 하귀농업협동조합에서 매년 개최하는 농업성공대학에서 '환상의 숲' 글자알과 '제주 올리브 스탠다드' 농장 견학을 하게 됐다. 조합은 새내기 농업인을 1차 산업에 머물지 않고 6차 산업으로 끌어올리는 미래의 제주형 농업의 현장 속으로 이끌었다.

'환상의 숲'은 생명력은 있으나 경제성이 없어 못 쓰는 땅인 곳자알을 활용해 단순 체험 관광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자생하는 석창포를 재배하고 가공해 죽옥 카페를 운영하고 더 큰 사업자와 손을 잡

제주는 기후 변화 속에서 올리브빛 꿈, 꾸어도 좋겠나

아 새롭게 각광받는 제주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주 올리브 스탠다드'에서도 올리브오일 등 단순 생산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올리브를 매개로 한 체험형 관광농장으로 올리브 역사와 문화 소개는 물론 소규모의 올리브 가공 및 유통까지 '농촌 융·복합산업'의 신박한 운영을 위해 40대의 경영인이 부지런히 발 빠르게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농업을 1차 산업으로만 인식하는 편견을 바꿔놓으려는 조합 측의 진행 의도는 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성공했다. 아직 선부른 감이 있지만 올리브를 가공 대체 작물로 본다는 이곳 대표의 말이 귀가 솔깃해진 때문이기도 했다.

느낌만으로도 이국적인 올리브 초목이 하늘거리는 제주의 농촌이 휴식과 건강과 부(富)의 창출이라

는 생명력을 함의하기에 충분했다. 순간 온난화의 열병을 앓고 있는 이 지상에서도 감히 새로운 '중의 다양성'을 꿈꿀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1차 산업의 생산성만으로 보는 제주의 올리브 농사는 갈 길이 한참 멀었다. 올리브는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제주의 토질과 기후에 잘 적응하지 못해 오일 생산이 열매의 8%대로 극히 저조하며, 밀식재배가 어려워 넓이에 비해 생산성이 낮다. 하여 조정용 목목이나, 절임용 열매, 잎 차 등을 가공해 소규모 유통 판매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어떤 농가는 경험과 기술 부족으로 나무들이 원인도 모른 채 죽어가는 것을 눈 뜨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 또한 있었다.

하지만 올리브를 흑한기에도 월동할 수 있는, 햇빛 드세고, 거칠고 비탈져 쓸모없는 여분의 자갈땅에,

별다른 시설 투자 없이 생산비도 적게 드는 6차 산업용 작물로 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농사라는 자연과학에 인문의 웃을 입혀 교육하고 경영하는 사업이니 또 다른 통합적 시각에서 봐야 함은 물론이다. 1차 산업은 무릇 하늘이 도와야 되는 일이라 사람의 정신승리법만으로는 무척 어렵다. 그러나 6차 산업은 사람이 하는 데 따라 그 성패가 달라질 수 있다. 사람 농사에 더 가깝다. 문화 관광 조성사업에 더 가깝다. 어떤 농사인들 실패해 보지 않고 성공한 적이 있더라.

그러므로 지금 불어닥치는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열린 도정과 농업은 소규모 특수작물 재배 농가에 오로지 최선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6차 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분야의 과감한 투자와 아낌없는 지원을 우선 선행해야 할 것이다.

사설

제12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출범... 역할 막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그제 제 4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이상봉 의원을 신임 의장으로 선출하며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출범을 알렸다.

앞서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과 관련 여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난항을 예고했지만 합의의 바탕으로 해결점을 찾았다. 원 구성 문제로 여야 간 힘겨루기로 파행을 거듭했던 제22대 국회는 다른 모습을 보여 다행이었다. 도의회는 3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 등을 통해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상봉 의장은 당선 인사말을 빌어 "제주에 처한 현실과 미래를 생각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라며 "심각한 민생경제 침체 상황에서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최일선에서 담보할 수 있는 특별대책을 의원들과 소통하며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

다. 저출생, 초고령화, 청년 유출,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은 물론 제2공항 갈등과 관련 도민의 화합과 뜻을 최우선에 두고 갈등 중재자로서 소통하며 방법을 찾아나가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도정이 후반기 행정체제 개편도 도민 공감대 없이 일방통행식 추진이라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어떤 형태로든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

민생문제 해결 등에 따른 후반기 도의회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은 두 말하면 잔소리다. 도민의 대의기구로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면서도 제주의 미래를 향한 거보를 내딛는데 집행부와와 새로운 관계 설정이 중요한 시점이다. 지난 2년간의 활동을 발판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시 신발 끈을 고쳐매야 한다.

열린마당

공무원의 청렴



강 봉규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청렴의 실천 방안으로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투명한 업무 수행이 있을 것이다. 모든 업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다 보면 당연스럽게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며 이는 부정부패를 막는 쉬운 방법이라 생각한다. 두 번째는 부정부패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대 대한 감시와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토목직 공무원으로서 청렴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더욱 튼튼히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청렴한 직무 수행은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우리 사회를 더욱 밝고 건강하게 만들 것이다. 앞으로도 청렴을 공무원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직자로서의 생활을 하도록 하겠다.

청렴의 실천 방안으로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투명한 업무 수행이 있을 것이다. 모든 업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다 보면 당연스럽게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며 이는 부정부패를 막는 쉬운 방법이라 생각한다. 두 번째는 부정부패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대 대한 감시와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토목직 공무원으로서 청렴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더욱 튼튼히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청렴한 직무 수행은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우리 사회를 더욱 밝고 건강하게 만들 것이다. 앞으로도 청렴을 공무원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직자로서의 생활을 하도록 하겠다.

뉴스-in

"민관협력의원 80%는 될 것으로 본다"

오 시장, 낙관적 전망 피력

○...신임 오순문 서귀포시장이 지난해 1월 대정읍 상모리에 건물을 완공했지만 다섯 차례에 걸친 입찰 공고에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피력.

오 시장은 2일 서귀포시청 기자회견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민관협력의원과 관련한 질문에 "조만간 공모를 할 텐데 들어올 데가 있다고 들었다. 80%는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모해도 안 되거나 조를 개조해 인건비를 지원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인건비 지원은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언급.

그러면서 오 시장은 대정에 있는 시설이 잘 운영되면 장기적으로는 표선이나 성산 쪽에도 민관협력의원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점언.

교육청 조직개편 심사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오는 9월 하반기 인사에 적용을 목표로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심사 결과에 교육계 안팎으로 관심이 집중.

2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번주 중 도의회에 제출이 이뤄질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전교조 제주지부, 교사노동조합 등 조직개편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각계에서 여러 의견이 접수됐다는 후문.

제주도의회는 오는 15일 개최할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의원들 사이에서도 정무부교육감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는 전언.

첫 시행 주 4.5일제, 근무체계 세심히 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이달부터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금요일 오후 휴식을 보장하는 주 4.5일제를 운영한다. 골자는 월~목요일 기간에 4시간을 추가 근무하면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하는 방식이다. 제주도와 행정시인 제주시, 서귀포시, 그리고 공공기관 산하 직원이 적용 대상이다. 도는 앞으로 기관별 규정 준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4.5일제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업무 공백과 이로 인한 주민 민원처리 등 불편이 없도록 근무체계를 보다 세심히 갖추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 등 그동안 편법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걱정 앞서서 것도 사실이다. 부작용과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잘 준비해야 한다. 일부 부서만 해

택을 보고, 현장부서는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그래야 도가 기대하는 것처럼 근무시간 손실 없이 업무 효율성과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주말과 연계해 일과 가정의 양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를 계기로 제주도정이 민간부문의 열악한 근무여건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주 4일제 혹은 4.5일제는 낯설지 않다. 점차 다양한 업종으로 고용시장이 열악하고 대부분 영세한 도내 기업들로서는 어렵다. 우선은 유연근무제만이라도 확대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꿔나가야 한다. 필요하다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주도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실 공고

종류 : 아파트 공금계약서
소재 : 연동 해동루 루민 아파트 201동 802호

상기 아파트 공금계약서를 분실하였기에 분실물에 대한 무효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일
위 공고인 양기남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도백]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주택·아파트·상가 빌딩 리모델링의 새로운 변화!

시설물·금속·창호·도장·방수
조경시설물·전문건설업

제주시 서광로 256. 4층

킴/건축디자인
010-2699-7080
F:064)723-1045 / E:ehdrb0064@hanmail.net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개장신고서 무료 작성 대행

장례지도사 강봉호
010-5254-6661
「사)한국예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장 의사
616-08-85402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수렴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5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전소의 명칭 (주)신한에너지, 사람과자연(주), (주)아르케에너지
- 발전소의 위치: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2483번지
- 발전소의 면적: 20,740㎡
- 발전사업의 내용
-설비용량: 640.08kWp*1개소, 999.18kWp*2개소
-사업 개시 예정일: 2025년 11월 예정
-사업 운영 기간: 2025년 11월 ~ 2045년 10월(20년2군)
- 발전사업 허가신청자: 한승현, 조영동, 이정복
- 의견제출 기간: 2024년 7월 3일 ~ 2024년 7월 9일
- 의견제출 방법: 전화 010-8985-2438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을 미국식품의약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술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